

버림 받은 이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 마지막 안식처, 꽃동네 병원

- 인곡자애병원,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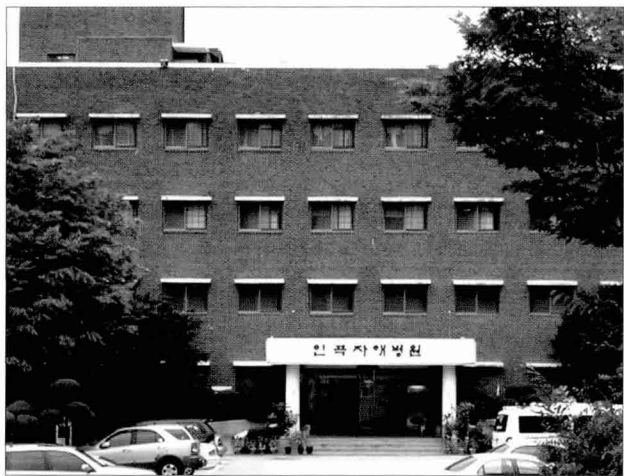
신상현(야고보) 원장

## 꽃동네 병원

꽃동네는 이 세상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여 먹여 드리고, 재워 드리고, 병들면 치료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따뜻이 안장해 드리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는 현상은 빵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든 채 버려지는 사람들은 가정과 세상을 원망하며 구원받지 못할 상태로 죽어 갑니다.

4,000명이 넘는 꽃동네 환자분들을 돌보아 드리기 위하여 자체 병원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꽃동네를 사랑하는 진로 주식회사의 장진호 회장이 어린 시절 성당에 가다가 성당 어귀에서 동냥하던 걸인을 보고 어른이 되면 그분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는데, 1988년에 음성에 1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인곡자애병원을 지어 주었고, 1995년에는 경기도 가평에 45억을 들여서 또 하나의 준종합병원인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을 건립, 기증하였습니다. 의료 장비를 구입할 길이 없어 기도하였는데, 1989년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셨던 김대군 신부님께서 1억 6천만 원을 기증해주심으로써 음성 인곡자애병원의 의료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고, 가평꽃동네 노체

병원은 정부의 도움으로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의료 인력은 개원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정신과 교수를 파견해주시어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뒤 일부 자원봉사 의사들의 도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아 산부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 과목을 개설한 준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1.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

- 개 원 : 1989년 4월 27일
- 병상 규모 : 99병상
- 개설 과목 : 내과, 외과, 정신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과, 치과
- 특수 기능 : 호스피스 병동, 인공신장실 운영



## 2. 가평꽃동네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 개 원 : 1996년 3월 15일
- 병상 규모 : 99병상
- 개설 과목 :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치과, 한방과
- 특수 기능 : 자원봉사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에 대한 교육

꽃동네 역사 32년간 이 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회복되어 세상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약 7,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에 안긴 가족 수가 4,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분들을 모두 꽃동네 낙원 묘지에 안장하여 드렸습니다. 현재 4,000명의 꽃동네 환자들을 위한 1차 진료 및 입원 진료 기능을 담당하면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는 의정부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2, 3차 진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여의사 수잔(26세)

## 구원 사업

꽃동네에 입소된 가족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분들은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애정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도와주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것 저것을 요구하고 하소연하여 봉사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밭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나 할까요. 계속 달라고 할 줄만 아는 사람과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는 수십 년간을 걸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거지란 달라고 할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돈과 물질, 학문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꽃동네가 하는 일은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아니고 인간 구원 사업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란 희생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바침으로써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려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버림 받은 분들을 조건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아 드리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이 채워질 때 그분들은 세상과 화해하고 그분들을 버린 가족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꽃동네 병원은 버림받은 이들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 용서와 화해의 마지막 안식처

말기 에이즈 환자를 잘 격리된 병실에서 따듯이 돌보아 드렸습니다. 그 불쌍한 환자는 외국에서 발병하여 그동안 벌여놓았던 돈이 치료비로 다 떨어지자 현지처도 떨어져 나가고 병든 몸으로 휠체어에 실려 고국 땅으로 강제 추방되었지만 친 가족들마저 그 환자를 외면한 채, 모 종합병원의 구석진 병실에서 아무도 찾는 이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는 살의 피고름을 닦아 내고 소독약을 발라 드리고 대변을 보지 못해 고생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관장을 해서 변을 파내기도 하고 땀과 피로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목욕시켜드렸습니다. 새 환의로 갈아입히고 새 시트를 깔아 드리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따뜻한 밥을 떠 먹여 드릴 때, 서로 서로의 눈이 마주쳤



는데 그분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여 일을 함께 살았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해진 어느 날 밤, 그 환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저희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야…… 저를 떠난 현지처도…… 저를 외면한…… 가족들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록 죽지만…… 지난 세월…… 잘못 살았던 과거를 뉘우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한번…… 받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에 그 형제는 저희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딱 한 번 조건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이의 행복을 노래하며…….

## 버림 받은 가난한 이들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의료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 받기까지 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꽃동네 병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었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주는 현장의 역할을 해 오면

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원 봉사 의료인들의 도움과 간병 봉사를 자진해서 도와준 수많은 학생들, 기업인, 공무원, 군인들의 사랑으로 이룬 열매입니다.

그러나, 현재 꽃동네 병원이 공보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간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아 1,000여 명이 넘는 정신과 환자 진료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원사업에 동참해주실 의사, 간호사, 의료 전문직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꽃동네 수도자들은 약소하지만 생명을 바쳐 그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봉사자뿐 아니라 정규직 근무자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음성 인곡자애병원 043-879-0301

가평 노체자애병원 031-589-0301